
기생 관계로 살펴본 기생자의 생존 방식에 관한 연구: 〈기생충〉에 나타난 숙주와 기생 생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남석 (부경대학교, 교수)

〈목 차〉

- I. 문제 제기
- II. 기피 행동: 숙주의 대응과 방어 행동
- III. 과잉 경쟁과 강경 보복
- IV. 숙주 조종의 대가: 공생 관계 파탄과 새로운 국면 창출
- V. 기생의 섭리와 숙주의 죽음
- VI. 결론: 영도의 대본 쓰기, 냉정한 생태 논리

국문초록

〈기생충〉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한국 영화였고 흥행 상으로도 상당한 호조를 보인 작품이었다. 최근 국내외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생충〉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표출하면서, 이 작품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인간 사회에 대한 보다 정치한 해석을 갖추기 위해서는, 작품 내에 수용된 자연 생태(학)적 관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기생충〉은 자연 생태계에서 기생자와 숙주의 관계를 면밀하게 고찰한 작품이며, 인간 사회의 특성을 묘사하기 이전에 그 유사성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경우이다. 따라서 〈기생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태 조건과 기생의 방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의 원리와 인간 사회 환경의 유사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기생충〉, 기생 생물, 숙주, 생물학, 생태계

I. 문제 제기

흔히 '기생충'을 지칭하는 영어단어 'parasite'는 고대 희랍어에서 유래하였는데, 어원상으로 '다른 이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¹ 이러한 단어의 속뜻은 해당 단어를 동명 제명으로 삼은 <기생충>의 주제나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참조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지칭하는 '숙주'에 해당하는 인물(박 사장, 동익)이 상정되면, 자연스럽게 박 사장이라는 인간 숙주에 기생하여 보상(급료)과 음식(먹이)과 공간(은신처)과 지위(직업)를 제공받(으려)는 인물(그것도 두 가족)이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가 <기생충>의 인간 세계(사회와 현실)의 그것(인간적 관계)에 비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자 관계에 대한 조명은, <기생충>의 고찰 과정에서 당연하지만 중요한 '기생의 의미와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관계를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대두되며, 이를 위해 '기생충'의 정의부터 차분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일단, 생물학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생충에 관련된 정의를 보자. 결과부터 말한다면, 각 연구자가 내놓고 있는 정의는 표면적으로는 엇비슷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내재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일례로 한 관련 연구자가 '기생'을 “한 생물이 다른 생물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계”로 정의한다고 하자.²

한 생물체가 다른 종의 생물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양쪽이 서로 이득을 취하면 공생(symbiosis)이라 하는 반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생물체를 기생충(parasite), 손해를 보는 생물체를 숙주(host)라고 한다. 이 관계는 영구적일 수도 있지만,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생충이라고 하려면 기생 생활을 해야 한다.³

1. 정준호, 『기생충,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 후마니타스, 2011, 19쪽.

2. 위의 책, 18쪽.

3. 서민, 『서민의 기생충 열전』, 을유문화사, 2013, 15~16쪽.

위에서 규정한 기생의 정의를 보면, ‘기생’ 관계를 생태계 내의 불균형한 양태로 파악하고, 공생과 비교해 부정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배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공생은 두 생명체가 취해야 하는 균형 잡힌 관계이고, 기생은 이득의 측면에서 불균형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더욱 생태계 내의 균형과 안정을 앞세우는 시각에서 같은 양태를 규정하면, 기생은 “숙주의 생산력을 저하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관계”로 기술되곤 한다.⁴ 기생에 대한 부정적 성향은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정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양자 균형의 조화를 파괴한 악의적 생존 방식이라는 속단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기생’에 대한 단순하고 편협한 정의로는,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존 양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기생을 일방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관계로만 파악할 경우, 숙주와 기생 생물의 복잡한 상호 교환 양상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즉 기생 관계에 기생충이 반드시 숙주에게 해로움만 전가하는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공생으로 재정의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기생 관계 자체가 대체로 성립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숙주와 기생 생물의 관계는 해로움/이로움 등의 일방적인 관계만을 맺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생의 정의에서 기생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찾아 내지 않을 수 없다. 생물학자 안트 드베리(Anton DeBery)는 공생을 “자유 생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두 생명체가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대체로 한 생명체가 체내 혹은 그 위에서 살아가는 관계”로 정의하고자 했고, 이러한 공생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관계를 별도로 상정하여 기생 관계로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⁵

이상의 기생과 관련된 정의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일단 공통점을 꼽자면, 우선 공생과 기생은 두 종 혹은 두 생명체 이상의 관계에서 상정되는 생명 활동이라는 점이고, 다음으로 두 생명체(이상)의 관계에서 자원(먹

4. 정준호, 앞의 책, 18쪽.

5. 위의 책, 18쪽.

이나 에너지)의 이동(사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며, 그다음으로 먹이나 에너지의 사용 관계에서 소유, 취득, 명분 등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환이나 거래 과정에서 알려진 부분과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두 종 이상의 생명체는 상호 영향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때 자신이 필요한 먹이나 에너지 혹은 주거 조건 등 생존에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타자(혹은 숙주)로부터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때 양쪽의 이익과 손해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일종의 공식화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득실이 은폐되면서 '보이지 않는 거래'가 암암리에 실현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기생충〉에서 주목하는 기생 관계는 한쪽 다른 한쪽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부여받는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이지 않은 경쟁과 득실이 개입하여 그 손익과 득실이 표면적으로만 상정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생충과 관련된 생물학적 명제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생물학에서도 생물의 기생 관계를 반드시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로만 파악하고 있지 않다. 견해에 따라서는 진화를 가능하게 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바라보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기존 주장과 기본 명제를 존중한다면, 〈기생충〉에 대한 해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 해석이 〈기생충〉에 나타나는 인간 숙주와 기생 가족의 관계를 상/하 구도에 입각한 지배/피지배 구조로 보는 데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 사회와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근거로, 〈기생충〉을 소수 부유 계층의 정치·경제학적 지배(구도)와 소외·하층 계급의 종속(문제) 관계를 다룬 영화로 바라보려는 시각이 지나치게 승하기 때문이다.⁶

6. 최근 이러한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점과 시각으로 〈기생충〉을 분석하는 논문이 등장하고 있다(양세욱, 「음식의 플롯, 미각의 미학: 음식과 미각의 시야로 다시 보는 〈기생충〉」, 『영화연구』(86), 한국영화학회, 2020, 271~297쪽; 김문주,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뱀세의 타자성」, 『인문사회 21』(11권 2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2020, 597~610쪽; 최영현, 「영화 의상에 나타난 사회 계급의 표현」, 『한국의류학회지』(44권 5호), 한국의류학회, 2020, 856~877쪽; 김남석 외, 「〈기생충〉에 수용된 '먹이'의 공유(共有) 관계에 대한 고찰」, 『철학·사상·문화』(34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원, 2020, 542~559쪽).

하지만 <기생충>에서 이러한 시각만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다. 기생학과 생물학에서 말하는 상호 교환의 명제에 의거하면, 이러한 선악 구도 내지는 지배/피지배 구조 혹은 일방적 예측과 빈곤의 논리는 재고될 수밖에 없다. <기생충>에 등장하는 세 개체군(박 사장 일가/기택 가족/문광 내외)은 생존의 방식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경쟁과 거래를 양(측)방향으로 진행하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그려내는 생활 방식과 생존 양태는 (그들 각자에게 분배·할당되는) 먹이와 공간 그리고 에너지를 공유하는 일반 생명체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전제하에서 관찰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보편적·자연적·생명사적 시각이 확보될 수 있을 때, 그들의 상호 작용에서 확인되는 생태 원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기생충>의 중요한 골자와 보편적 의의에도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다. <기생충>이 한 사회나 시대의 풍경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생태 조건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인 이유도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II. 기피 행동: 숙주의 대응과 방어 행동

먹이를 다른 개체(들)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생명체는, 필연적으로 먹이 탈취 방식을 마련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특히 기생 생물로 분류되는 개체들은 숙주로부터 먹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이에 따른 전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숙주의 몸에 침입하여 은신하고 숙주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기생하면서 숙주의 먹이(영양분)를 가로채려는 생존 유지 전략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다.⁷ 하지만 다소 비열해 보이기까지 한 이러한 생존 유지 전략은, 생태계 전체 시야에서는 각종 생명체의 유지와 번식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면, 숙주는 기생 생물의 이러한 전략에 대항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생 생물이 기생의 방식을 더욱 교묘하게 구사하고자 하고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듯, 숙주는 생존을 위해 기생의 방식을 저지, 발견, 추적,

7. 서민, 앞의 책, 22쪽.

파괴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개발해야 했다. 그러한 방어 전략(행동)을 '기피 행동'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숙주가 기생충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물리적 기피 행동이다. 기생충과의 접촉이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감염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바라보는 동물들의 습관적 행동이나 그들이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인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략...) 세상에는 수많은 기생충이 있는 만큼 다양한 기피 행동이 개발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릴 적 개미집을 한 번이라도 털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것이다. 개미집을 건드리는 순간 개미 떼가 쏟아져 나와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개미에게 극독은 없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개미산이라는 시금털털한 산성액을 발사한다. 사람이나 새 같은 큰 동물에게는 불쾌감을 일으켜 쫓아낼 뿐이지만 이들보다 작은 동물들이나 곤충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한다. 일부 새들은 이를 역이용하여 개미산을 '뚝뚝'에 사용한다.*(밑줄: 인용자)

연교는 집안 살림에 필요한 새 인력을 충원하고자 할 때, 친분 있는 사람의 소개를 중시했다. 그녀는 과외 교사를 구할 때도 전임 과외 교사의 추천을 우선시하는데 이러한 그녀의 성향은 숙주를 피하려는 생명체의 '물리적 기피' 욕구로 설명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우는 민혁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고, 위장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다혜의 가정교사가 될 수 있었다. 인맥과 친연을 중시하는 연교의 약점을 공략한 성과라고 하겠다.

흥미로운 점은 연교가 친분을 중시한 까닭이다. 그 이유는 의외로 의심에서 찾을 수 있다. 언뜻 보면 <기생충>에서 연교는 어수룩한 여성으로 설정된 것 같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집 안에 사람을 들일 때는 가급적 '추천'이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겠다는 철칙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그로 인해 박 사장 일가가 중차대한 위기에 처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소개)를 활용한 선발 전략은 그 자체로 기생 세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책이기는 했다. 이 방책은 인류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 유효성을 인정받은 보호 체계이기도 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자신의 집안과 상대

8. 정준호, 앞의 책, 82~84쪽.

세력 간의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태계에서도 숙주는 기생 생물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책으로 안면에 의한 친근감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연교의 인재 선발(추천) 전략은 기생 세력과의 접촉이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오래된 기피 행동으로 파악될 수 있겠다. 자신과 이미 접촉하고 신뢰를 쌓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작위적인 접촉 기회를 줄이고 상대를 파악하지 못해 감수해야 하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름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피 전략은 상대(측)에 해당하는 기생 생물에 그러한 전략을 무산시킬 대응 전략을 부르기 일쑤이다. 그러니까 기피 전략에 대응하는 기생 생물의 전략은 숙주의 의도 자체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 <기생충>에서 그 대응 전략이 민혁과 기우의 단합이었고, 기우의 사전 입성이었다. 숙주 격에 해당하는 연교는 딸의 과외 교사로 해를 끼치지 않을 기품 있는 대학생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임 과외 교사의 이익과 전략이 개입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외 교사를 영입하는 폐해를 입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다혜의 사적 영역에 더 깊숙하게 침범하는 '기생자'를 소개하는 역효과마저 낳고 말았다.⁹

III. 과잉 경쟁과 강경 보복

당연하게도 이러한 관찰 결과는 숙주와 기생 생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피 행동 역시 숙주를 통해 계속 진화한다는 사실이다. 기생충학자가 이미 밝혀낸 대로, 숙주의 방어 전략(기피 행동)은 해당 개체가 속한 생태계(구조)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이러한 생태(계) 구조는 동식물의 자연 생태계를 비롯하여 인간 사회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9. 전임 과외 교사인 민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후임 과외 교사로 기우를 선택했고, 기우는 최초에는 민혁의 의도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숙주에게 달라붙는 선택을 단행했다. 결국 숙주의 기지와 전략은 기생 세력의 대항과 협력에 의해 무력화된다(김남석 외, 『<기생충>에 수용된 '먹이'의 공유 관계에 대한 고찰』, 『철학·사상·문화』(34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0, 544~547쪽).

부유층이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하층 계급과의 연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한다. 부유층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 집안 구조, 심리 동향, 그리고 각종 비밀을 다른 계층에게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가급적 자신들의 세계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계층 중에 접근을 용인하는 이들을 소수로 유지하고자 한다.

한 사회 내에도 부유한 사람들의 거주지가 별도로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들이 즐기는 유흥은 하층 계급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더구나 의식주의 측면에서 일반 대중과는 차별화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처럼 상류 계층은 대중이나 빈민층과 차이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른바 상류사회만의 세계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의 일상과 문화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류 계층의 생각과 행보는 당송의 생일 파티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당일 급조된 파티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사장의 정원에 모인 인원은 상당한 수에 달했다. 그들 모두가 박 사장과 동일 계층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박 사장 측에서는 적어도 자신들과 유사한 사고와 삶의 반경(수준)을 지닌 이들이라고 간주하는 인물들이었다.

또한, 다송의 생일 파티는 그러한 파티를 향유하여 온 계층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초대받지 못했을 계층의 차이까지 시사한다. 초청받지 못한 이들은 기택 일가가 그러하고, 근세 또한 그러하다. 결국 그들은 그날 그들과 어울리지 않은 자리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가족의 죽음과 가족 해체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영화의 전언대로 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대가이고, 들키지 말아야 할 정체를 들켰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박 사장 저택에서 숨어 사는 근세(일가)와 교묘하게 취직한 기택 일가는 숙주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발각당해서는 안 되는 기생 세력이었다. 하지만 두 기생 가족은 숙주를 두고 쟁투를 벌였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정체를 노출하고 만다. 숙주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노출되면, 숙주는 기생 생물을 눈치채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박멸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박멸은 공멸로 나타났고, 숙주마저 손해를 입는 상황으로 번져갔다. 과잉 경쟁이 숙주-기생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한 것이다.

기생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정보의 차단과 교묘한 은폐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본래 상류층(부유층)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체계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에 민감한 까닭도 자신에 대한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생자들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잉여 생산(물)을 확보하고 있고 영양분의 분배를 도모할 수 있는 계층일수록 자신들의 소유물(음식과 거처)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전략에 몰두하고자 한다. 어수룩한 연교만 해도 이러한 전략을 본능적으로 구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어 기제가 본능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민혁의 추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혜의 수업을 참관하고, 기우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기정의 수업을 참관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방어 기제의 발동을 의미한다.

다만, 연교의 검증 전략은 기택 가족의 대응 전략에 의해 무력화되고 말지만, 그녀가 취한 행위는 숙주의 기피 행동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택 가족의 전략은 기피 행동에 대한 무력화 전략에 대응된다. 숙주와 기생자들의 오래된 숨바꼭질의 산물인 셈이다.

이러한 숨바꼭질은 자연에서도 발견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하는 개미산을 활용한 개미 군집의 방어 전략이나, 이러한 개미의 방어 전략을 이용하는 새의 대응 전략은 매우 흥미롭다. 새들은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나 벼룩 혹은 이 등을 박멸하기 위하여 개미집을 고의로 건드리고, 화가 난 개미들이 난사한 개미산은 새에게 기생하는 생물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다. 요약하자면, 새라는 숙주는 기생 생물의 박멸을 위하여 개미의 기피 행동(물질)을 응용하고 있다.

연교의 방어 전략(기피 행동)을 파악한 기택 일가는 연교로 하여금 기피 행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문광을 축출하는 성과를 거둔다. 기택 일가가 연교의 의심을 부추기자 연교는 기피 행동 심리를 최대로 발휘하여 스스로 문광을 해고하고 축출하는 선택을 시행했던 것이다. 타인(숙주)의 방어 전략을 활용하여 부담스러운 기생자를 제거하는 전략은 일차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것이다.

〈기생충〉은 기생자들이 이용하는 숙주의 기피 행동을, 인간 사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사건 전개와 인물 갈등의 중요한 동인으로 격상시키면서 단순하지 않은 생태 질서를 서사 내부로 체현하는 성과를 거둔 작품이다. 이 과정에서 기택 일가의 취업 전략은 표면적으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숙주의 기피 행동이 무력화되는 양상까지 보여 주고자 한다.

다만 〈기생충〉의 중반 이후에는 판도가 달라진다. 숙주의 보이지 않는 반격이 이어졌고, 기생자들은 일시에 위기로 몰렸다. 인간으로 진화하기 이전부터 자연(생태)계에서 벌였던 치열한 공방을 본능적으로 기억해 내기라도 한듯, 숙주 역시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는 않았다. 폭우로 인한 급거 귀가는 대표적 반격 사례이다. 박 사장 일가는 숙주 세력의 창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귀가만으로도 기생자들은 심각한 위협에 내몰리는 상황을 창출했다. 뉘새를 통해 기생자의 비밀에 접근하는 과정도, 기생자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으로 다가왔다. 완전하게 기생자들의 투입과 공존 그리고 폐해를 차단할 수는 없다고 해도, 워낙 강력한 힘을 지닌 덕분에 오랜 전통을 지닌 숙주들의 반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위협으로 귀착된다.

이처럼 자연에서 숙주와 기생 생물의 반복되는 생존 다툼은 물론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도 재현될 수 있고 또 재현되고 있다. 개미산이 거대 동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기생 생물에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처럼, 폭우는 부유층에게는 관상(음미)의 여운을 남길 뿐이지만, 하층민과 하위주체(하위계층)에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충분한 곤란이 될 수 있었다.

부유층은 별반 의식 없이도 상당한 곤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능적인 방어 전략을 생래적으로 체득(실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전투 경험과 생존을 향한 극한 상황에서, 숙주가 가질 수 있는 본능적인 방어 전략이자 기피 행동이기 높은 집과 넓은 공간을 획득하는 안목과 선택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기피 행동 역시 인간과 기생충이 상대를 감염시키고자 각종 전략을 모색하고 그 전략을 파악하여 격퇴하는 과정의 일환이었거나 그 과정에서 획득된 후천적 형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IV. 숙주 조종의 대가: 공생 관계 파탄과 새로운 국면 창출

〈기생충〉에서 기택 일가가 겪어야 하는 가장 큰 상처는 기정의 죽음이었다. 기우가 의식을 잃고 결국 희망을 잃는 것이나 기택이 살인죄를 짓고 평생 숨어 살아야 하는 처지도 그들 일가가 겪어야 하는 아픔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은 기생의 대가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생자들이 숙주를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종의 부작용이다.

하지만 기정의 죽음은 기정사실이라고 해도, 기택 가족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들은 박 사장 일가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미 사전 조종을 통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과 성공에 대한 자축은 결국 자연 생태계에서 기생 생물이 숙주를 조정하는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생 생물 중에는 숙주의 선택을 조종하여 원하는 목표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종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생충은 숙주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는 숙주가 포식자나 물 등에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촌충에 감염된 가시고기가 좋은 예다. 건강한 물고기는 바닷새가 나타나면 물속 깊은 속에서 먹이를 먹으며 피하지만, 감염된 물고기는 여전히 수면 가까이에서 머물며 공포를 상실한 것처럼 행동한다. 공포심을 상실한 물고기는 새에게 쉽게 잡아먹히고, 물고기 안에 있던 기생충은 무사히 최종 숙주인 새에 안착할 수 있다. (...중략...) 어떤 기생충들은 더욱 교묘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숙주의 삶과 행동 전반을 변화시킨다. 이런 숙주 조종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기생충은 바로 기생말벌들이다. 기생말벌들은 흔히 포식 기생자(parasitoid)라고 부른다. 포식 기생은 기생충이 발육 기간 중의 일부를 숙주의 내외부에서 자라나면서 숙주를 서서히 죽여 가는 방식을 말한다. 숙주를 떠날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숙주의 목숨이나 생식 능력을 앗아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생충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¹⁰⁾(밑줄: 인용자)

기택 일가가 박 사장 내외의 의사 결정에 관여한 과정을 반추해 보자. 민혁의 소개로 과외 교사가 된 기우는, 인맥을 중시하는 연교의 취향을 깨닫고, 그

10. 정준호, 앞의 책, 43~45쪽.

너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한다. 과외 교사 면접에서 연교의 마음을 다룰 수 있다고 믿게 된 기우는 관련 정보를 기정에게 전달하고, 기정은 또 다른 기생자로서 박 사장 집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한다.

〈기생충〉에서 기우는 숙주 격인 연교가 기정의 신분과 실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조종하고자 했고, 간략하게 시행된 면접에서는 기정의 새로운 조종법(연교를 현혹하는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여, 기정은 더욱 관대한 조건으로 다송의 과외 교사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전술한 대로, 기생 생물이 숙주의 몸속에서 '더욱 교묘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숙주의 삶과 행동 전반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비견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우가 기정의 취직을 돕는 과정은 기생 생물의 기생 과정에 해당한다. 기우가 시작한 연교 현혹 작업은 기정에 의해 완성되면서 두 기생 생물이 한 숙주에 달라붙어 공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후 기우와 기정은 숙주 연교의 의사 결정에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었다. 자동차 안에 벗어놓은 기정의 팬티가 운전기사를 몰아내는 과정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운전기사의 빈 자리는 또 다른 기생자인 아버지의 몫이 된다.

기정의 작업(팬티)이 선임 운전기사를 해고하도록 유도했다면, 기우는 아버지 기택이 운전이 적합한 능력을 갖추는 일을 돕는다. 〈기생충〉에서 고급 차량 판매 센터에서 운전 방식과 차량 기능에 숙달하는 과정은 흥미롭게 묘사되고 있다. 여기에 박 사장 집 분위기와 가족 취향을 파악하고 있는 기정과 기우의 지원이 추가되면서, 기택의 취직은 또 다른 기생자의 침투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문광을 몰아내고 충숙이 집사(가정부)로 취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교향곡이 여러 악기의 화음으로 이루어지듯, 충숙의 취직은 결국 기택 일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잠입을 뜻한다. 결국 그들이 시행하는 축하연은 기생자가 숙주를 조종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한 축하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생충 연구 학자들은 기생충이 숙주의 행동이나 의사 결정을 방해하거나 조종하는 방식에 주목해왔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어떤 기생충들은 “더

욱 교묘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숙주의 삶과 행동 전반을 변화시”키는데, <기생충>에서 설정한 기택 일가의 위장 취업을 그 사례로 들 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문광이 축출되고 모친 충숙이 입주하는 사건은 숙주(박 사장과 연교)의 판단을 현혹하여 기택 일가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후 기택 일가는 박 사장 집 숨겨진 내실에 웅크리고 있던 문광 내외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하면서 명실상부 가장 강력한 기생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면밀한 계획과 용감한 쟁투로 얻은 승리였기에, 기생자들은 포식 기생의 단계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생자가 경쟁 기생자들을 물리쳤을 때, 필연적으로 숙주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마지막 대결은 <기생충>에서도 주목하는 결말이다. 기택이 숙주 격인 박 사장을 살해한 결말 말이다. 위 인문윤에서 제시한 기생말벌의 사례는, 숙주인 박 사장과 기생자인 기택 일가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생말벌은 포식 기생자이기에, 숙주를 통해 먹이(음식)와 환경(생존 조건)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국에는 숙주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는 무서운 기생 생물이다. 그러니까 “숙주의 내외부에서 자라나면서 숙주를 서서히 죽여 가는 방식”을 선보이는 기생말벌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박 사장 가족과 기택 일가 그리고 문광 부부의 관계에서 숙주 격인 박 사장이 살해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충숙의 입주로 기택 일가는 박 사장 집 내외에 포진할 수 있었고, 박 사장의 수입과 음식을 스스럼없이 갈취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더욱 커져, 집과 돈과 사회적 지위마저 자신들이 차지할 계획과 야망을 세운다. <기생충>은 기택 가족의 계획과 기우의 야망이 좌절되는 순간을 보여 주는 데에 주력하지만, 이미 상류층의 ‘단맛’을 본 이들로서는 숙주의 품을 떠나 밑바닥 생활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하지만 어느새 냉정해진 박 사장은 기택 일가에게 넉넉한 자비와 선의를 베풀지 않고 있었다.

<기생충>에서 기택은 자식의 죽음과 자신에 대한 모멸감에 휩싸인 나머지, 우발적으로 숙주 격인 박 사장을 살해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그 분노는 뿌리 깊은 것이며(인간에 대한 인간의 모멸), 그 원대한 꿈이 좌절된 상황에 대

한 당황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냉정하게 그 결말을 반추하면, 기택은 살 인자가 되었지만 안전한 직장과 먹이 창고를 획득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물러나야 하는 운전기사보다 더 매력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도 할 수 있다. 자연에서도 관찰되는 대로, 기생자가 숙주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그러니 비록 <기생충>의 영화적 설정은 이러한 결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여 이해 가능한 결말로 이해되도록 조정하고 있지만, 포식 기생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생태학적 질서로 이해될 수 있겠다. 어떠한 이유에서든—그것이 신분 노출이든, 모멸감이든, 자식의 죽음을 바라본 절망감이든 간에—기생자인 기택 처지에서는 박 사장과의 종속적 기생 관계를 종료해야 할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논점은 기생자가 포식 기생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일이다. 영화에서 기택은 유순하고 세상의 명리를 포기한 인물처럼 묘사되었지만, 생존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지닌 인물이었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착을 지닌 가장이었다. 그것은 기택 일가 모두가 지닌 본능적 성향인데, 그들은 가족으로서 서로를 보호하려는 의식으로 충만한 상태였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신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중, 즉 친척에게 이득을 주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 이러한 혈연 선택(친족 선택)은 결국 자신의 가족이 숙주에게 기생하며 먹이를 얻는 방식을 공유하도록 종용했고,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다.¹¹

기생충 중에는 홀로 숙주의 뇌에 남아 숙주를 조정하여 숙주가 자신을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기생충(창형흡충)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생충의 놀라운 점은, 일부의 무리(들)가 스스로 희생하여 다른 장기에 남은 다른 기생충들의 생존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즉 소수의 창형흡충이 자신을 희생하는 대가로, 대다수 창형흡충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기우의 부상과 기정의 죽음은 일부의 창형흡충이 위험을 무릅쓰고 뇌에 남아 숙주를 조종하고 결국에는

11. 기생충의 세계에서도 혈연 선택(친족 선택)은 먹이와 생존을 위한 우선적 이타 행위의 조건을 형성한다(위의 책, 51~53쪽).

장렬하게 전사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가 기택과 충숙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고 생존을 위한 여건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기택 가족은 일부 가족의 희생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머지 가족의 생존을 위한 가능성에 매달려야 했다. 더구나 이러한 절박함은 숙주의 희생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로 기생자들에게 극한의 상황으로 인지된다. 요약하면 기생말벌이 포식 기생자의 포악함을 드러내면서까지 숙주에게 유착되는 것처럼, 기택 가족은 박 사장과 기생 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함에 속박당한다. 그때는 설령 기정의 죽음이 예견된다고 해도, 박 사장 집에서의 기생을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전술한 대로, 기정의 처참한 죽음, 기우의 심각한 부상, 기택의 절대적 감금, 충숙의 암울한 미래는 기생자가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운명이다. 하지만 동시에 숙주의 삶과 행동 방식 그리고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안락함을 추구한 대가로 빚어진 필연적 결말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음의 사실을 상기시킨다.

숙주는 기생충에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먹고살 안식처라는 황금알을 낳아준다. 하지만 기생충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숙주의 배를 갈라 버리면 기생충이 미쳐 다음 세대를 시작하기도 전에 숙주가 죽어 버릴 수 있다. 숙주가 죽어 버리면 기생충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다.¹²

기우가 욕심을 부리고 기정이 그 욕심을 부풀리자 숙주의 집은 황금알을 낳는 안식처에서 서로를 죽이는 도살장으로 변했다. 기생자의 다음 세대가 죽었고, 숙주가 죽었고, 기생충의 미래 역시 암담해졌다. 기생할 곳을 잃은 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스스로 설 공간을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V. 기생의 섭리와 숙주의 죽음

두 기생 가족의 다름은 성대한 박 사장 가족의 파티장에서 절정에 달한다. 숙

12. 위의 책, 54쪽.

주를 두고 싸우는 기생자의 운명은 박 사장이라는 숙주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만다. 기생 가족의 공생도 사라지고 결국 숨어 버린 한 사람과 죽어 버린 여러 사람의 결말만 허용될 따름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 과정에서 숙주를 살해하고 그 살점을 먹는 기생자의 습성이다.

아카시아는 속이 빈 가지를 만들어 개미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자신의 수액을 나누어 준다. 그 대가로 개미는 아카시아에 들러붙는 각종 해충이나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쫓아 낸다. 그러나 공생 관계를 지탱해 주는 외부적 압력, 즉 아카시아 나무를 위협하는 동물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계속되는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1995년 이후 코끼리나 기린 같은 대형 초식동물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후 아카시아 나무의 수액 분비량이나 속이 빈 가지도 적어졌다. 개미 역시 아카시아 나무에 구멍을 뚫고 수액을 파먹어 나무를 손상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공동의 적이 사라진 자리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기적인 전략이 새로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¹³(밀줄: 인용자)

아프리카 사바나의 아카시아 나무속에 만들어졌다는 공동은 박 사장 집 내부에 생겨난 지하 병커를 연상시킨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숙주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고마워하는 기생자가 살고 있었던 점도 동일하다. 문광 남편은 박 사장이 원하는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려고 애쓴 기생자였다. 기택과는 달리 근세는 선을 넘지 않아 한집에 살면서도 그 정체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 비록 박 사장은 근세와 더 오랜 시간 동거를 했음에도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박 사장이 염원하는 하층민과의 동거를 만족하면서도 각자의 거리를 지킨 사례라고 하겠다.

근세 역시 숙주의 허영심까지 인정하며 존경심마저 드러내는 충직한 세입자이기도 했다. 비록 박 사장이 근세의 존재를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충성스러운 세입자(기생자)에게 기꺼이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에 상당히 만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비의도적/무의식적 배분 행위는 자기 수액을 나누어주는 아카시아나무의 보이지 않는 분배 생태와 근본적으로 동질적이라고 해야 한다.

13. 위의 책, 21쪽.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입자는 궁극적으로 아카시아나무를 배신한다. 그 과정은 세입자(기생자)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습성이었다. 처음에 세입자는 박 사장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박 사장의 집으로 침투하는 또 다른 기생자들을 색출하고(정체를 밝혀내고), 그들을 제압하는 충성심을 아낌없이 발휘한다. 숙주인 박 사장에게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기택 일가를 고발하려는 모습에서 이러한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결과적으로는 박 사장의 죽음을 초래한다. 아카시아 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기생자와의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박 사장 역시 살해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미가 아카시아나무에 구멍을 뚫고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변화에 대응될 수 있겠다. 어느새 개미는 아카시아나무가 아닌 자신의 안위를 돌보고 있었다. 문광의 남편이 자신의 복수심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하 병커에서 나오는 순간, 숙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기생자의 또 다른 축인 기택 일가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살펴보자. 박 사장의 재산과 명성은 기택 일가의 생존과 안위에 막대한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박 사장이라는 숙주는 아카시아나무에, 기택 일가는 그 안에서 수액을 나누어 먹는 기생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처음에는 아카시아나무와의 공생(기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연교는 기우와 기정의 과외 실력에 안도했고 자신의 자식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잠정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는 기사와 집사를 바꾸고, 유능하고 신뢰할만한 새로운 기사와 집사를 구했다고 안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별다른 확신은 없었지만, 그들 사이의 묘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불쾌한 냄새로 상징되는 차이가 그들-숙주의 삶을 어지럽힌다는 피해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카시아나무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기생자인 기택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위협은 또 있었다. 쫓겨난 문광과 그녀의 보이지 않는 남편이 기생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생자 사이의 경쟁도 첨예화되었다. 기택 일가가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하고 숙주인 박 사장에게서 내

쳐질 위험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로서는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집사나 전 기사처럼 기택 일가 역시 숙주의 반격과 축출될 수밖에 없었다.

아카시아 나무가 공동을 줄이고 수액 분비도 줄이면서 기생 생물 개미가 어려움에 처하듯, 기택의 식구 역시 위기에 처했다. 기우가 다쳤고 기정이 죽었다. 기택 일가에 대한 멸시와 거부도 강해졌다. 기택으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숙주를 바꾸지 않고는 기생 가족의 위험은 더욱 가중될 수 있었다. 기생 가족의 간격은 숙주의 피해 여부를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이었다. 아카시아 나무에 구멍을 뚫었고 수액을 파먹었다. 기택 역시 숙주 집안의 기동인 박 사장을 해쳤고, 그 집 깊숙이 숨어들었다. 그 안에서 당분간 기생하면서, 박 사장 집에 남아 있는 먹이(수액에 해당)를 탈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기택과 박 사장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개미와 아카시아 나무의 관계와 같다. 개미는 이제 숙주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데,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의 변심과도 무관하지 않다. 박 사장 일가가 가하는 모욕과 위험 신호는 개미에 해당하는 기택 일가의 변화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기생자 박멸이 일어났고, 그 대가로 숙주 살해도 발생했다.

VI. 결론 : 영도의 대본 쓰기, 냉정한 생태 논리

생태계의 시각에서 <기생충>을 바라보면, 숙주와 기생 생물 간의 경쟁이 기본적으로 정의와 권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본능적이고 생태적인 조건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생충>이 사회적 전언에서 기존의 영화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기생충>의 시각은 약자와 빈자, 소외자와 하류층의 역전이나 균형 회복을 겨냥하지 않는다. 적어도 영화적 전언에서 그들-기택 일가로 대변되는 기생자들—은 정의롭거나 사회적으로 억울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봉준호는 그들이 가난한 이유를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바라볼 수 없도록

각종 설정을 조율하고 있다. 기택이 가난한 것은 그가 했던 사업이나 종사했던 업종에서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스테라 사업이 망한 것도, 발레 파킹을 해야 했던 이유도 어떠한 책임 소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불운한 기류가 흘렀고, 때마침 사업 운도 없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상자 접기의 실패처럼 무능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기우가 네 번이나 수학능력시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기정이 그 뛰어난 두뇌와 실력을 가졌으면서도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한 것도, 충숙이 운동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그와 관련된 현재를 영위하지 못하는 것도, 그 어떤 이유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매우 냉정하게 그 상태를 그대로 묘사한다. 마치 기생 생물이 숙주에게 기생 생활을 하려는 이유가 사회 탓이거나, 자연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말하거나 단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숙주의 부당함이나 정당함도 따지지 않는다. 박 사장이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박 사장이 특별하게 부도덕하거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도 아니다. 그는 고용인과 자신의 관계에서 선과 거리가 존재하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거리감은 본능적이고 내재적인 거리이다. 그 거리로 인해 상대를 압박하거나 부당한 대우, 심지어는 야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는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지 않고(오히려 풍부한 보수를 지불한다), 고용인이라고 해서 예의에서 특별히 벗어나거나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교양인으로 행세하지만, 그러한 일처리나 행세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도 않는다. 숙주로서의 그는 고매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비루하지도 않는다. 그는 투명하고 평균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다.

과거의 영화에서 빈부의 격차를 다룰 때, 부유한 자는 부도덕하거나 이중적이거나 심지어 교만한 자의 표상을 상투적으로 갖추곤 했는데, 박 사장은 이러한 인물 부류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재산과 사회적 지위로 볼 때, 부정적인 인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박 사장의 연장선상에서 연교나 다혜와 다송도 파악된다. 연교는 어수룩하지만, 기본적으로 선량한 심성을 가진 여인이다. 오히려 이러한 여인을 속이는 기생자들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혜나 다송도 되바라지거나 비뚤어진 성격의 아이들이 아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가질 법한 오만함도 찾기 힘들다. 다소 특이하지만 그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종류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다. 오히려 다혜는 기우를, 다송은 기정을 따르고 과외 교사로 존중하는 착한 아이들에 가깝다.

정리하면 숙주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악덕 인물들로 묘사되기 일쑤인 부유한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흠결이나 약점을 가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타자나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질 정도로 해로운 존재는 아니다. 다시 말해 숙주의 부당함으로 인해 박 사장이 죽고 그 가족의 존폐가 좌우되는 불운을 겪을 만한 사회적/도덕적/구조적 책임을 지닌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생충>에서 숙주의 가족이 큰 불행을 당하고 가장이 죽는 사고를 겪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렇다고 그 일을 저지른 기생자들의 편에서 보아도, 그들-기택 일가는 생존을 위해 바둥거리야 했고, 잠시간의 여유를 즐길 따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복은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한낱 꿈에 불과했다.

부도덕하지 않은 상류층과 사회 구도를 전복시킬 이유가 없었던 하류층의 대결이었고, 그 결과 역시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때, <기생충>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는 기존의 선 대 악, 구조적 폭력 대 소외된 인간, 사회적 메커니즘 대 인간의 희생제의 등에서 찾기 어렵다. 일반적인 사회 이론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데에서 연원한다면, 박 사장 가족 대 기택 일가의 구도는 가해자 대 피해자 구조가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 생태계에서 숙주 대 기생 생물의 구도는 주목해야 할 단서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선 대 악이나, 구조적 폭력 대 인간적 소외 같은 구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당하지도 그렇다고 다른 쪽이 부당하지도 않다. 그들은 무색무취의 상태이며 결과적으로는 선도 악도 아닌 영도의 상태이다.

이러한 무균질의 상태에서 작동하는 본능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다. 기생자도 생존을 위해 숙주를 찾고, 숙주 역시 본능적으로 기생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다. 기생자의 접근이 교묘해서 거시적으로는 숙주의 피해와 패배가 예상되었지만, 자연 생태계에서 숙주의 이용 가치는 기생자의 일방적 승리만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빚어냈다. 다른 기생자의 존재나 숙주의 본능적인 기피 행동 그리고 각각의 개체들 사이의 복합적 관계로 인해 세 개체는 누구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가족의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 역시 자연 생태계에서는 다른 관찰이 가능하다. 박 사장 일가는 가장을 잃고 실의와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문광 내외는 모두 죽어 세상에서 사라졌으며, 기택 가족 역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유폐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자연 생태계는 유지되고 남은 이들은 각자의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냉정하지만 사회는 유지되고, 그중 누군가는 숙주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기생자가 되어야 할 운명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경쟁과 보이지 않는 쟁투가 벌어질 것이다. 결국 선도 악도 아닌, 생존과 경쟁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도의 균형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기생충>은 사회 과학적 상상력이 아닌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구사한 작품으로 볼 수 있겠다. 이것은 <기생충>이 이전의 작품과 달리 사회적 편견이 아닌 냉정한 자연의 섭리에 기반했음을 보여 주는 근거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남석 외, 「〈기생충〉에 수용된 ‘먹이’의 공유(共有) 관계에 대한 고찰」, 『철학·사상·문화』(34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0, 542~559쪽.
- 김남석, 「〈기생충〉에 나타난 음식의 위계와 그 격차에 관한 연구」, 『횡단인문학』(7호),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년 02월 28일, 89~90쪽.
- _____, 「니치(niche) 개념으로 본 한국 영화의 생태학적 구도 연구」, 『현대문학이론 연구』(5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2~36쪽.
- 김문주,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냄새의 타자성」, 『인문사회 21』(11권 2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2020, 597~610쪽.
- 서민, 『서민의 기생충 열전』, 을유문화사, 2013, 15~22쪽.
- 양세욱, 「음식의 플롯, 미각의 미학: 음식과 미각의 시야로 다시 보는 영화 〈기생충〉」, 『영화연구』(86), 한국영화학회, 2020, 271~297쪽.
- 정준호, 『기생충,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 후마니타스, 2011, 18~108쪽.
- 최영현, 「영화 의상에 나타난 사회 계급의 표현-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44권 5호), 한국의류학회, 2020, 856~877쪽.

Abstract

A Study on the Survival Method of Parasites in the Parasitic Relationship

Kim, Namseo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Parasite> was a Korean film that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and it was a work that showed considerable success as a box office. Recently, researchers at home and abroad have expressed explosive interest in this <Parasite>, and are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on this <Parasite>. The research related to <Parasite> thus calculated takes the spatial background of the work as an important observation point, and concludes that this film is a work that reveals the structural problems of Korean society. However, in order for this work to reach a more precise interpretation of hum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natural ecological (scientific) observation accepted in the work. <Parasite> is a work that close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sites and hosts in natural ecosystems, and reflects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similarity before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society. Therefore, in order to obtain the results of in-depth research on <Parasit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imilarity between the ecological conditions and the method of parasitism, the principle of the ecosystem maintained based on this, and the human social environment.

Keywords: (Parasite), Parasite, Host, Biology, Ecosystem

논문 투고일 : 2021년 03월 13일 심사 완료일 : 2021년 04월 06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04월 13일
--